

“인생이 가까워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어서 보면 희극이다”

인류를 웃기고 울린 천재 예술가

찰리 채플린

청년기

찰스 스펜서 채플린은 1889년 4월 16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뮤직 홀에서 공연하는 가수이자 배우였다. 채플린이 3세가 되던 해 부모가 이혼했으며 이후 어머니와 함께 여러 곳을 이사하며 자랐다. 채플린은 부모로부터 노래를 배웠으며, 할머니가 집사의 자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찰스 채플린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으며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그마저 오래가지 못했고, 채플린의 이복 형제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1901년 그의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다시 가수 생활을 하게 되자 찰리 채플린은 워크하우스로 보내졌다. 채플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뮤직 홀의 아역 배우로 무대에 섰는데 이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훗날 채플린은 어머니를 할리우드로 불러 같이 살았다. 채플린의 어머니는 1928년 사망하였다.

출생 1889년 4월 16일 영국 런던
 사망 1977년 12월 25일(88세) 스위스 베베이
 본명 찰스 스펜서 채플린 Charles Spencer Chaplin
 직업 희극 배우, 영화 감독
 대표작 키드,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어깨춤, 라임라이트
 경력
 1929 _제1회 아카데미상식 공로상
 1940 _제6회 뉴욕비평가협회상 남우주연상
 1972 _제44회 아카데미상식 공로상 / 제36회 베니스영화제 특별공로상
 1973 _제26회 미국감독조합상 명예상 / 제45회 아카데미상식 주제가상
 1975 _대영제국 기사작위



Charles Spencer

짧 았 던 인 쇄 경 험

우리 부는 직공 이후 일한 곳이 인쇄사와 문방구를 겸했던 스트레이커스였다. 스트레이커스는 높이가 20피트나 되는 육중한 와피데일 인쇄기(1856년에 윌리엄 도슨과 데이비드 페인이 개발한 인쇄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다룰 줄 안다고 거짓 말을 했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지하실에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직공이 나를 인쇄기 앞에 데려갔다. 정말 괴물같이 육중한 모습이었다. 그것을 조종하려면 5피트나 되는 발판을 밟고 올라서야 했다. 마치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선 것 같았다.

레버를 천천히 잡아당기자 인쇄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완전히 잡아당기자 으르렁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것만 같았다. 인쇄용지도 인쇄기에 걸맞게 컸다. 나는 아이보리 스크레이퍼(종이를 판판하게 펴는 도구)를 가지고 인쇄용지를 부채꼴로 펼쳤다. 그 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했다 이렇게 물려주면 인쇄기는 용지를 빨아들여 반대쪽에 있는 출구로 인쇄된 종이를 내뱉었다. 첫날은 나를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인쇄기 앞에서 찢찢매며 보냈다. 다행히 주급으로 12실링을 받기로 하고 일자리를 얻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말마다 100파운드가 넘는 젤라틴 롤러를 분리해 잉크 찌꺼기를 닦아내는 일이었다.

미 국 으 로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찰리 채플린은 자선 단체인 오드펠로우 독립기사단에 함께 가입하고 있었던 프레드 카노와 함께 미국 순회 공연에 나섰다. 순회 공연이 끝난 후 채플린은 미국에 체류하였다. 카노와 채플린의 연기는 맥 세넷과 같은 코메디 영화 제작자의 눈에 들었다. 맥 세넷은 채플린을 자신의 영화사 키스톤의 배우로 채용하였고 슬랩스틱 코메디 영화 <생활비 벌기>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였다. 함께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던 여배우 마벨 노르만이 세넷을 설득하여 채플린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채플린은 노르만 영화감독이 감독한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고 채플린은 매우 유명해졌다.

명 성 을 얻 다

그는 초기 영화에서 좌충우돌하는 캐릭터를 창조하였고 영화 제작을 매우 빨리 배웠다. 채플린이 24세이던 1914년

제작된 두 번째 영화 <베네치아의 웃기는 자동차 경주>에서 채플린은 이미 전형적인 그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바로 이어져 제작된 영화 <마벨의 이상한 재난>에서 맥 세넷은 '코메디다운 영화'를 주문하였고 채플린은 등근 뺨모자에 꽂기는 옷도리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짧은 지팡이를 든 그의 전형적 모습을 선보였다.

키스톤에서 활동하던 초기 채플린의 작품은 과장된 제스처와 슬랩스틱 코메디가 주를 이루었다. 비평가들은 이 새로운 코메디가 저속하다고 평했지만 대중들은 열광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작품 가운데 <손쉬운 길>, <어느날 오전>, <전당포>, <모험가> 같은 영화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자 신 만 의 영 화 를 만 들 다

퍼스트 네셔널은 1918년부터 1923년까지 채플린의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고 완성된 영화를 배포하였다. 채플린은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리고 영화의 구성, 배우 섭외, 연기, 연출, 제작을 도맡아 일했다. 이 시기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에는 <어깨 총>, <필그림>, <키드> 등이 유명하다. 1919년 채플린은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라는 이름의 영화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였는데, 보다 긴 상영시간과 함께 예술적인 모습을 띄었다. 채플린은 무성 영화로 <파리의 여인>, <골드 러쉬>, <서커스> 등을, 유성 영화로 <서커스>, <시티 라이트>, <모던 타임즈> 등 제작하였다.

정 치 성 향

채플린은 좌파 정치 성향을 일관하였다. 비록 초기 작품이 슬랩스틱 코미디이긴 하였으나 그때 이미 그의 작품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 그의 영화를 직접 만들게 된 채플린은 보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드러나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1936년의 <모던 타임즈>와 1940년의 <위대한 독재자>는 그의 정치 성향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작된 <라임 라이트>와 같은 채플린의 영화는 보다 부드러워졌으나 여전히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휴머니즘을 보여 준다. 그러나 매카시즘의 광풍이 시작되자 채플린 역시 이를 비켜가지 못했다. 1952년 채플린은 <라임라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런던에 갔다가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채플린은 스위스베베이에 정착하였다. 이후 채플린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1972년 아카데미 명예상을 수상하기 위한 방문이 유일하다. ☞



→tip 위대한 독재자

장르 코미디 국가 미국 시간 127 분 감독 찰리 채플린
출연 찰리 채플린(독재자 힌켈/유대인 이발사 1인 2역), 파울레트 고다드(한나)

채플린의 본격적인 첫 유성 영화는 1940년 제작한 <위대한 독재자>이다. 이 영화는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을 풍자하고 있다. 영화가 개봉될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여전히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상태였다. 채플린은 히틀러를 풍자한 '어데노이드 힌켈'과 이발사의 1인 2역을 연기했고 베니토 무솔리니를 풍자한 '벤치노 나폴리니' 역은 잭 오기가 연기하였다. 이발사의 연인 '한나' 역은 모던타임즈의 여주인공이었던 파울레트 고다드가 다시 맡았다. <위대한 독재자>는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군국주의를 풍자하고 있다. 이 영화로 채플린은 아카데미상의 감독상, 작가상, 배우상 부분의 후보로 지명되었다.

Chaplin